

<서평>

The Journey from Texts to Translation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Bible

(Paul D. Wegner,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9)

안용성 *

‘본문들로부터 번역본들까지’라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책은 성서가 기록되고 교회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후 필사와 인쇄 과정을 거쳐 번역본의 형태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전문적인 신학자들 보다는 그리스도인 대학생들과 평신도들을 염두에 두고, 성서의 전수 과정에 대해 전반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충실한 안내를 제공한다. 이 책을 쓰면서 저자가 염두에 두었던 수많은 질문들 중 서문에 언급된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성서의 책들은 고대 근동의 다른 글들과 어떻게 다른가? 성서의 책들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받게 되었는가? 왜 유대인들은 구약성서만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과 신약을 다 인정하는가? 왜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어떤 분파는 외경을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파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가장 오래된 필사본들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의 번역본은 얼마나 정확한가? 오늘날 존재하는 수많은 번역본들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저자 웨그너(Paul D. Wegner)는 성서의 형성과 전수 과정을 단지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 고대 근동의 다른 책들과 구별됨을 강조하며, 오랜 전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정확하게 보존되었음을 보이려 한다. 그래서 이 책에는 간혹 서문에 제시한 저술 의도를 벗어나 있는 내용도 눈에 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옛 언약과 새 언약 등의 주제를 다루는 제2장과 신구약성서의 통일성 문제를 다루는 제5장이다.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에 해당하고, 그에 이어지는 제1부는 네 장에 걸쳐 성서에 관한 예비적 사실들(Preliminary Matters Regarding

* 장로회신학대학교 초빙(강의전담) 교수, 신약학

the Bible)을 서술한다. 앞에 언급한 제2장에 이어 제3장과 제4장은 각각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대상으로 그 역사적 배경, 담겨있는 책들의 분류와 순서와 제목 등에 관해 — 일반 성서개론서에는 종종 생략되어 있는 — 매우 요긴한 설명을 담고 있다. 그러나 51쪽 삽화(4.3)의 설명문에는 대 헤롯의 즉위 기간이 기원전(4년이 아닌) 6년까지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공관복음서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를 잘 해 놓았으나, 62쪽 오른쪽 도표에 인쇄 상 오류가 있다. 마가와 마태를 잇는 화살표 그리고 Q와 누가를 잇는 화살표가 누락되어 있다. 제5장은 신구약성서의 통일성을 드러내기 위한 해석적 시도로서 알레고리적 방법, 유형론적 방법, 주제적 통일, 약속과 성취, 정경비평적 해석 등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다섯 장으로 이루어진 제2부의 주제는 정경화 과정이다. 제6장은 고대의 기록 방법에 대한 기술적 개관을 제공한다. 문자의 발전 과정과 성서 언어인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의 역사가 서술된 후에는 여러 가지 기록 도구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개의 삽화들과 함께 이어진다. 제7장부터 제9장까지는 각각 구약 정경과 외경, 신약 정경과 외경에 할당된다. 제7장은 먼저 정경의 개념을 정의한 후, 개신교, 가톨릭, 동방정교회가 사용하는 서로 다른 정경 목록을 제시하고, 구전으로부터 구약 정경 형성까지의 과정을 요약한다. 특히 이 책은 이미 주전 2세기에 구약성서의 정경으로 인정받는 책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문서 근거들을 제시한다. 주전 2세기부터 주후 5세기까지 기록된 이 문서들 중에는 칠십인역, 집회서의 서문, 신약성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제2에스드라, 요세푸스, 오리겐, 아다나시우스, 제롬, 시리아의 루피누스 등이 포함된다. 그에 이어 구약 정경에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이 다루어지는데, 암니아 회의가 실제로 존재했느냐의 문제, 정경 포함 여부에 논란이 되었던 다섯 권의 책들, 그리고 외경들을 포함시켰던 알렉산드리아 정경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구약 정경 외 문서들을 다루는 제8장은 ‘여호와와의 전쟁기,’ ‘야살의 책’ 등 구약성서에 언급된 17권의 책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가톨릭에서 정경으로 인정하는 15권의 책들(외경)과 가톨릭 정경에도 들지 않는 위경 문서들을 그 성격에 따라 그리고 시대 구분과 내용 요약을 달아 소개하고 있다.

신약 정경을 다루는 제9장은 저자의 신학적 입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저자는 신약성서의 책들이 모두 주후 1세기 내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 마가 복음이 60년에 기록되었다고 말하며, 비평학자들이 2세기 초의 작품으로 보는 목회서신(딤펴전, 딤펴후, 딤펴)을 웨그너는 6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간주한다(56쪽 표 4.2). 또 데살로니가전서를 가장 오래된 바울서신이자 신약성서 최초의 문서로 보는 일반적 견해와 달리 저자는 갈라디아서(49년 초)가 데살로니가전서(50년)보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장 늦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는 베드로후

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한 저자는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동일 저자의 작품으로 간주한다. 저자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문서들도 매우 일찍 기록된 것으로 본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문서들이 신약 최초의 문서들보다 약 4백 년 먼저 기록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성문서가 정경으로 인정되기 훨씬 이전인 4-5세기 경에 이미 문서로 기록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한 가지 분류상의 불일치를 지적하자면, 히브리서를 이 장(137쪽)에서는 일반서신에 포함시켰으나 54쪽 표 4.1의 일반서신 목록에는 넣지 않았다.

저자는 신약성서가 매우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경화 역시 빨리 이루어졌음을 보이려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서적 근거들이 제시되는데, 주후 1세기의 인물인 로마의 클레멘트가 쓴 글들 중에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에 베소서, 디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등의 인용으로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2세기 초까지 생존했던 안디옥의 이그나시우스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등을 암시하는 언급을 했다고 주장한다. 만일 웨그너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경화의 시기뿐만 아니라 목회서신과 일반서신의 기록 연대를 앞당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인정하듯 이 주장은 명시적이거나 정확한 인용에 기초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웨그너는 이들 외에도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 순교자 저스틴, 마르시온, 이레니우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문서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저자는 동서방 교회와 시리아 교회의 정경을 비교한 후, 정경 결정 과정을 서술한다. 저자의 주장은 교회가 정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경화 과정에 개입하셨다는 것이다.

제10장은 신약 정경 외 문서들을 다룬다. 먼저 ‘아그라파,’ 즉 신약성서에 담기지 않은 예수 말씀들에 대한 언급을 신약성서와 다양한 사본들, 교부들의 글, 신약 외경 등에서 찾아 소개하며, 신약성서에 언급된 정경 외 문서들 즉 ‘다른 복음서’(눅 1:1; 요 21:24-25), 바울이 라오디게아 보낸 편지(골 4:16),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세 번째 편지(고후 7:8) 등의 목록을 따로 도표로 만들어 제시한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앞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즉 ‘고린도전전서’(고전 전 5:9) 등이 빠져 있어 완벽한 목록이라 보기는 힘들다. 또 웨그너가 말하는 ‘세 번째 편지(고후 7:8)’가 고린도후서 2:4에 언급된 ‘눈물의 편지’이고 그것이 만일 — 일부 학자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 고린도후서 10-13장과 동일한 것이라면, 이 편지를 정경 외의 문서로 분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저자는 현존하는 신약 외경들을 장르별로 나누어 75가지 책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복음서와 그에 관련된 유형들, 논문, 묵시문학, 행전, 서신, 예배서 등이 포

함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교부들의 글들이 추가된다.

제3부는 성경이 기록된 후 필사와 인쇄를 통해 전달된 과정을 요약해 준다. 제 11장부터 제14장까지 네 장을 신구약에 각각 두 장씩 할애하여, 제11장과 제13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전수된 과정을 다루며, 제12장과 제14장에서는 본문비평의 자료들을 소개한다. 제11장은 먼저 신학적인 이해가 없는 독자들을 위해 왜 성경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식 과정과 유대 민족이 겪은 여러 가지 재난들, 서기관들의 예전적 처분(일종의 문서 장례식), 적대자들의 파괴 등 가능한 사례들이 친절하게 제시되고 있다. 필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본 변경의 열 가지 사례들도 하나의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어서 저자는 초기 사본의 필사 과정과 마소라 텍스트의 형성 과정, 그리고 표준본문뿐만 아니라 타나임, 아모라임 등 다양한 시대와 경로를 통해 구약 본문이 전수된 과정을 여러 의견들과 함께 소개한다. 시간적으로 보면 주후 100년 이전에 나온 가장 오래 사본으로부터 1000년 이후의 최종 마소라까지 포함된다. 자료의 수집, 평가, 가장 개연성 있는 본문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원본 재구성 과정과 구약 본문비평의 기본 원칙들도 간략하게 소개된다.

제12장은 본문비평에 사용되는 다양한 사본들과 인용문, 타르굼 등을 히브리어와 여타 언어(주로 그리스어와 아랍어)로 나누어 정리한다. 여기에 소개된 사본들 가운데는 은 부적(silver amulets), 사마리아 오경, 사해사본, 무라밧 사본, 마사다 사본, 나할 헤버의 사본, 케니자 단편, 벤 아셔 사본 등이 포함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해사본이 성서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볼 때, 너무 적은 분량(한 쪽 미만)이 그 서술에 할애되어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구약 사본의 수가 수백 개에 머무는 데 반해 신약사본은 최소한 5,400개에 이른다고 하며, 이러한 수적 대비를 반영하듯 신약 본문비평을 다루는 제13장과 제14장을 구약 부분보다 더 세분화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적 비교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임마누엘 토브(Emanuel Tov)에 의하면 마소라 텍스트에 속하는 사본만 해도 6천 개가 넘으며, 그 중 1540년 이전에 나온 것만 따져도 2,700개가 되기 때문이다(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1992], 23).

웨그너는 구약성경을 다룬 앞 장들과 달리 신약성서 본문 비평의 역사를 독립 항목으로 만들어 삽화와 함께 꽤 상세히 정리한다(212-220쪽). 여기에는 일찍이 4세기에 살았던 제롬으로부터 시작하여 17세기의 브라이언 왈톤(Brian Walton), 요한 벵엘(Johann Bengel, 1687-1752), 칼 라흐만(Karl Lachmann, 1793-1851), 웨스트콧(B. F. Westcott, 1825-1901)과 호르트(F. J. A. Hort, 1828-1892) 등을 거쳐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비평판

그리스어 신약성서까지의 오랜 역사가 망라되어 있다. 그런데 제13장은 — 상세한 설명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 저자의 독특한 분류 방법으로 인해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저자는 서체를 시대별로 나누어, 대문자(capital), 언셜(uncial), 필기체(cursive), 소문자(minuscule)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사본학자들은 대개 신약 사본을 파피루스, 언셜, 소문자 등 셋으로 나누며, 이것은 단지 서체뿐만 아니라 기록 재료의 구분도 포함된 분류법이다. 즉, 서체로 말하면 파피루스들도 언셜로 기록되었으나, 사본 분류에서 ‘언셜’이라는 할 때는 대개 (양)피지에 기록된 주후 4-10세기의 사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J. Harold Greenlee,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9], 36). 언셜체를 설명하는 마지막 문단 첫 문장에서(209쪽) 웨그너는 ‘언셜 사본’(uncial manuscripts)이라는 말로 파피루스 사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4장(235쪽)에서는 다시 파피루스 사본과 언셜 사본(uncial manuscripts)을 구분함으로써 ‘언셜’이라는 분류어의 의미를 모호하게 한다.

‘초기 성서 번역들’(Early Translations)이라는 제목이 붙은 제4부는 ‘초기 번역본들’(early versions)을 다루는 제15장과 함께 최초의 그리스어 인쇄본들을 다루는 제16장을 포함하고 있다. 웨그너는 자기 언어로 번역된 성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박해와 이단의 위협을 더 잘 이겨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저자는 성서가 매우 이른 시기에 평민들의 언어로 번역된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7세기의 이슬람 정복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살아남은 반면, 성서가 번역되지 않은 북 아프리카의 버버(Berber) 지역에서는 그리스도 신앙의 자취가 거의 살아남지 못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저자는 번역본들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부터 직접 옮겨진 1차 번역(칠십인역, 시리아어 페쉬타, 라틴어 등), 1차 번역을 다시 옮긴 2차 번역(예: 칠십인역을 옮긴 초기 라틴어 번역들), 그리고 이를 다시 옮긴 3차 번역으로 구분한다(예: 칠십인역을 번역한 아르메니아어 역을 다시 옮긴 고딕 번역들).

인쇄 기술의 발전은 성서 사본의 전수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구텐베르크에 의해 서양 최초로 활판 인쇄된 책은 두 권으로 된 제롬의 라틴어 불가타였다. 웨그너는 구텐베르크에 앞서 중국에서 목판 인쇄(868년)와 활자 인쇄(1041-1049)가 발명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중국에 앞선 한국 인쇄기술의 발전, 즉 751년 경에 간행된 세계 최초의 목판본 『무구정광다라니경』이나 1234년에 제작된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 『고금상정예문』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활자가 개발된 후 50년도 지나지 않아 유럽 전역에 수많은 인쇄소들이 생겨났고, 성경의 출판이 활성화되었다. 제16장은 이러한 인쇄 기술의 발전과

함께 태어난 여러 가지 그리스어 신약 성경들과 성경 출판에 중요한 역할을 한 출판업자들에 관해 서술한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영어 번역본들을 다루는 제5부이다. 저자는 먼저 제임스왕역(King James Version)이 출간된 1611년 이전의 번역본들을 설명한 후(제17장), 그 이후 시대는 제임스왕역을 개정한 번역들(제18장)과 그로부터 독립된 번역들(제19장)로 나누고, 다시 1950년을 분기점으로 그 이후에 나온 최신 번역본들을 소개한다(제20장). 제임스왕역의 특권적 위치에 관한 논쟁도 텍스트스 레셉투스(Textus Receptus)와 관련지어 소개되고 있다.¹⁾ 그에 반해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비차별적 언어(inclusive language) 사용 문제가 빠져 있는 것은 좀 아쉽다. 제5부에는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영어 번역본들이 시대 순으로 설명되어 있어 영어권 독자들의 관심을 충족시켜 주나,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으므로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단, 마지막 장인 제21장(Why So Many Translations?)은 왜 이렇게 많은 번역본들이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다. 저자는 그 이유를 번역자가 사용한 히브리어/그리스어 원문, 번역자의 신학적 교단적 배경, 번역 문체, 번역 목적 등의 차이로 나누어 설명하며, 하나님의 이름이나 구두법 등 세부적인 문제들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100개 이상의 삽화와 6장의 지도, 그리고 100여개의 도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큰 종이에 두 페이지로 편집되어 있어서 눈에 쉽게 들어오고 읽기에 편하다. 또 이 책은 성경의 내용보다는 그 주변적인 질문들을 다루지만 평신도나 신학생들이 한번쯤 가져보았을 만한 의문들을 해소해 주므로 — 독립된 안내서로서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 성서 개론에 보조 교재로 사용하면 좋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성경의 형성과 전수의 경로는 성경 원문으로부터 영미권 독자들에게로 향한다. 해당 분야의 저자들에 의해, 비슷한 관점에서, 한국인 독자들로 이어지는 전수 경로를 탐험하는 책이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주요어>(Keyword)

성경의 형성사, 정경, 사본, 번역, 본문비평

formation of the Bible, canonization, manuscripts, translation, textual criticism

1) 이와 관련된 글로 「성경원문연구」 제1호에 실린 박창환,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정체”를 참조하라.

<Abstract>

Book Review- *The Journey from Texts to Translation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Bible*

(Paul D. Wegner,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1999)

Prof. Yong-Sung Ahn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Wegner plans his book as “a general survey of how the Bible we use came to be in its present form ... directed primarily toward the undergraduate student or layperson.” The author not only describes the form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Bible but also emphasizes how it differs from other books of the ancient Near East and attempts to show how accurately the revelation of God has been preserved even through the long journey of transmission. Thus, sometimes the author digresses from the goal of the book in order to discuss the themes like general revelation, special revelation, the concept of covenant (ch. 2) and the unity of the two covenants (ch. 5.).

This book is comprised of 5 parts. Chapter one corresponds to the introduction, and Part I describes the “preliminary matters regarding the Bible.” Part II treats the issue of canonization, including both canonical and extracanonical books of both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Part III discusses textual criticism, examining its sources and transmission. Part IV describes early translations and the first printed versions. Part V is concerned with English versions. The final chapter titled “Why So Many Translations?” offers many helpful insights even for non-English speakers.

This book has a number of typos and errors, including the incorrect number of surviving OT manuscripts and the unclear categorization of the term “uncial.” The Dead Sea Scrolls could be given more weight, and the topic of “inclusive language” is to be added to the debates concerning the English translations. Nevertheless, its reader-friendliness (with more than 100 figures, 6 maps, and more than 100 tables and the author’s concerns with the beginners) makes this an excellent accompaniment with the introductions to the Bible.